

Hidden Hope for a Dysfunctional Family 문제 많은 집안을 위한 숨어있는 소망(창 37:1-11)

Where is God?

Today we begin a series on the last section of Genesis — largely looking at the character of Joseph. This is particularly because we find ourselves subject all the more to a broken world where the effects of the fall are in many ways more pronounced

As we face the threat of more lockdowns, less freedom, & our ongoing struggle with sin & the fallen world in general, we find ourselves asking, ‘where is God?’ That’s a question that comes to us throughout the story of Joseph...& in this first passage in particular... as this family is consumed by evil — & in the wider story, as we see the world being destroyed by evil

Who among us isn’t burdened by a painful awareness of sin & the state of the world? God reassures us of His sovereign grace in such a context....that His invisible hand of grace prevails

A Family’s Fallen Figures (1-4)

V1, ‘Jacob lived in the land of his father’s sojournings, in the land of Canaan.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Jacob.’

‘the generations of Jacob’ introduces a new section of what’s to follow from now until the end of Genesis as it documents the beginning of the nation of Israel. Jacob means ‘heel grabber’ — when he was born he was clutching his older twin Esau’s heel. His name also conveyed the meaning of ‘deceiver.’ For a time he was a ‘deceiver by name & deceiver by nature’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고,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그 이유는, 요셉과 같이 우리는 이 최악 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런 타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록 다운의 위협과 우리 죄와의 지속적인 씨름,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삶 가운데 그가 가족의 악행을 통해 피해를 입을 때, 이런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죄와 이 세상의 타락함 가운데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확신을 안겨줍니다

한 가족의 침울한 모습 (1~4 절)

1~2a.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기록하는 새 부분이 오늘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는 그가 태어나면서 그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또한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야곱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본성 또한 속이는 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Along with his mother Rebecca, he deceived his father Isaac to receive the blessing of the firstborn over his older twin, Esau... Over his life, by grace through many trials, God gradually transformed Jacob from deceiver to a man of faith... A sign of this was when God changed his name in Gen 32 to 'Israel,' meaning, 'he strives with God' — after the occasion when God in the form of a man wrestled with him throughout the night.

Jacob's grandfather, Abraham, & their family including Jacob's father, Isaac lived in the land of Canaan. The author of Genesis tells us that Jacob lived here as well. But a great famine was coming...& under Joseph as we'll see in the coming weeks, the Lord would save & preserve His people in Egypt...'The generations of Jacob' are largely taken up with the way that Joseph preserves & saves the family of Jacob...

A family that's far from a model of virtue ... yet the Lord in His amazing grace, weaves His sovereign purposes throughout the story to save His people ... even through their dysfunction. That's the great hope of this passage — that in the midst of sin & its dreadful impact on a family of fallen figuresthe Lord's hidden grace is at work.

V2b, 'Joseph, being seventeen years old, was pasturing the flock with his brothers. He was a boy with the sons of Bilhah and Zilpah, his father's wives.'

We're immediately introduced to Joseph shepherding the flock with his brothers — the sons of Bilhah — servant of his mother Rachel & the sons of Zilpah — servant of Leah. It directs us back to Genesis 29 & 30. In 29:30 we read that Jacob 'loved Rachel more than Leah'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 와 함께, 그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 에서가 받아야 했던 장자의 축복을 대신해서 받았습디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시련 가운데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디다... 이러한 변화의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창세기 32 장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이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말씀하길 야곱 또한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오고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요 몇 주간 설교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십니다.

선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문제 많던 야곱의 가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주권적 섭리를 그 이야기 가운데 엮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큰 소망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큰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은 은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b,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 말씀합니다. 빌하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종이였고, 실바는 레아의 종이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9 장과 30 장을 다시 보면, 29:30 절에서 말씀하기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After that we see rivalry b/w Jacob's two wives, Rachel who was 'barren' — unable at the time to have children, & Leah who had given birth to Jacob's four sons [Reuben, Simeon, Levi & Judah]. In her envy, Rachel resorted to giving her servant, 'Bilhah' to Jacob... Bilhah conceived twice & gave birth to Dan & Naphtali [now with Joseph]...

Then, because Leah had stopped having children, she took her servant, 'Zilpah,' & gave her to Jacob & she bore Gad & then Asher [also now with Joseph]...

People who try to say that the OT condones polygamy not only forget God's one flesh union command for marriage, but also misunderstood the way the OT narrative shows the disastrous effects on those involved. Here in this text we see how it works on the next generation.

In regard to his brothers who were the sons of his father's concubines we read in the final part of v2, '(And) Joseph brought a bad report of them to their father.'

The closest parallel is the 'bad report' given by the unfaithful spies of Numbers 13:32 about the inhabitants of Canaan. The inference is that the report Joseph brought was malicious ... was the report true?...

Perhaps...but...at the least, Joseph should have had the decency to speak first to his brothers about their wrong — instead he became what's commonly known as a 'dobber' ... 'a snitch' 'an informer.' When we think about the principle of Matthew 18,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tell him his fault....' — we see that this was the very thing that Joseph didn't do. In this, we see that at this stage Joseph was deficient in his character.

이후 야곱의 두 아내 사이의 경쟁과 질투 가운데, 당시 불임이었던 라헬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레아는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은 레아를 질투하였기에, 그녀의 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레아가 아이 낳기를 멈추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 임신하게 하였고,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구약성경은 일부다처제를 용납한다고 주장함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타난 일부다처제의 문제점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의 첩의 아들들에 대해서 2 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처럼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와 비슷한 모습을 민수기 13:32 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잘못된 파수꾼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 잘못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함은 악의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형제들 잘못을 고자질하기에 앞서, 이런 잘못에 대해 먼저 그의 형제들과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 장에 나타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는 원리의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이처럼 행하지 않았고, 이는 요셉의 성품의 결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In ou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 can have a tendency to complain to others about a grievance we have, when instead, we should show integrity & talk directly to the person involved. Though it might feel like we're relieving a burden by 'sharing it' In actual fact it merely compounds the sin by dishonouring the one who offended us as we draw others into the destructive web.

In Christ, God calls us to integrity At the other end is the malicious report to another Here, it came in the context of Jacob's sin of favouritism.... v3, 'Now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ny other of his sons, because he was the son of his old age. And he made him a robe of many colours.'

Kent Hughes: 'Favouritism had become a generational sin in Jacob's family. Remember, Isaac loved Esau more than Jacob, and remember that Rebekah loved Jacob more than Esau, and recall that Jacob loved Rachel and her children more than Leah and her offspring...Joseph was the son of Rachel, his deceased and never-forgotten first love, and Joseph had been born late in life after so many years of frustration.'

Jacob should have known better but sinful favouritism had infected his heart ... shamelessly so, making it more obvious with a gift of extravagant clothing...

The Lord's word is calling us to be alert to the sin of favouritism. When parents let it happen, it particularly sets our children up for rivalry...jealousy....division...hatred. Apart from grace, parents are bound to fall into sinful patterns of relating to our children. One of the damaging impacts is to be a catalyst for division.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그 사람에게 직접 가져가 진실하게 얘기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런 불평을 나눔으로, 마음의 무게를 덜어 놓는다. 생각 할 수 있지만...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험담함으로, 그 사람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이는 죄를 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진실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이런 행동의 반대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며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 가운데, 자신들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야곱의 또 다른 죄를 보게 됩니다...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Kent Hughes 는 말하기를: “자식들을 “차별”함은 야곱의 집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이다.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야곱 또한 라헬과 그녀의 아들들을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다...요셉은 야곱의 첫사랑이자 죽은 라헬의 아들이었고, 큰 좌절 가운데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차별 대우 함이 죄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차별은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채색옷을 요셉에게 지어줌으로 이런 차별을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차별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된 자로서, 자녀를 차별한다면, 아이들 사이에는 경쟁의식과 질투, 분열,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를 대할 때, 최악 된 패턴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 된 패턴의 모습의 하나는, 자녀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The word continues to show us the damage it causes...v4, '(But) when hi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loved him more than all his brothers, they hated him and could not speak peacefully to him.'

Notice that the coat meant that they now saw their father's preferential love. The sense of it is that the brothers couldn't even greet him with 'shalom' — the Hebrew word for peace. When there's underlying resentment ... it shows itself by an inability to greet others with positive regard.

Is there anyone in the family of God particularly with whom you find yourself unable to greet with grace? Are there someone from past conflict that you'd rather avoid because the thought of a happy greeting seems impossible? 1 John 4:20, 'If anyone says, "I love God," and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We can assume devotion to Christ, but if we practically hate our spiritual siblings by an unwillingness to wish them well, we show we don't love the Lord as much as we might have thought — & that we haven't sought His grace as much as we might have assumed... He calls us to repent & believe.

Well, where was God in this family's dysfunction? Astonishingly, God also...but for very different reasons of a perfect nature was at work.... Overseeing their division & giving Joseph two self-exalting dreams that allowed sibling rivalry rise ready for their diabolical deed we'll see next week...

오늘 말씀은 이런 차별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 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채색옥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그의 형제들이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shalom’이라 말하며 인사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은혜 안에서 인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과거의 다툼으로 인해 그 사람을 반갑게 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인사하기를 피하려는 사람이 있나요? 요한일서 4:20 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 되어 있다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한다면,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의 가정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완전한 본성의 매우 다른 이유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열을 감독하시고, 형제간의 이기심을 키울 수 있는, 두 꿈을 요셉에게 나타내심으로, 결국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큰 악을 행합니다...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Divine Dreams as Resentment Rises (5-11a)

v5, 'Now Joseph had a dream, and when he told it to his brothers they hated him even more. He said to them, "Hear this dream that I have dreamed: Behold, we were binding sheaves in the field, and behold, my sheaf arose and stood upright. And behold, your sheaves gathered around it and bowed down to my sheaf."

Was Joseph being proud as he told the story? One might just as easily argue that he was merely being faithful to God in telling them though draped in the robe of the favourite son We can't help but think his character was deficient from 17 years of being indulged with favoured status.

We understand that in the unfolding story — the two dreams are from God & are fulfilled when Joseph becomes a ruler in Egypt...but there's a clue in the next verse that helps us see that the brothers weren't alone in their sin. V8, 'His brothers said to him, "Are you indeed going to reign over us? Or are you indeed going to rule over us?" So they hated him even more for his dreams and for his words.' Though Joseph's brothers' response is wicked ... it's not hard to see why as this younger, favoured son aroused their jealousy & their pride ...

Notice they hated him even more for his dreams, & for his words. To hate him for his dreams was to be resentful towards God's sovereignty. To hate him for his words, was to be resentful over the way in which he shared the dream.

Here we see that though humanity is responsible for the mess that sin makes....God is sovereign...He is so great as to use their godless rage to achieve His entirely good purposes.

꿈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5~11a)

5~7 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실히 전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그러나 아버지로부터 17년 동안 차별적 애정을 받고 살아온 요셉은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의 그의 형제들은 최악 된 반응을 8 절에서 보게 됩니다...8 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야곱의 차별대우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왜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꿈과 말 때문의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런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었으며, 요셉의 말 때문에 그를 더 미워했음은, 그가 꿈은 나누는 방법에 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사실은, 비록 이런 엉망인 상황의 책임이 인간의 죄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인간의 분노마저도,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That's His almighty unseen grace at the time, it may not seem so kind for Him to allow such fallen events into our lives but in & through the trials of a broken world — not least, the sin we experience at the hands of others..... His sovereignty reigns to achieve His great end.

The words from the hymn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remind us; 'the bud may have a bitter taste, but sweet will be the flow'r'...The utter hatred the brothers had for Joseph would be the bud that would be very bitter — not just for them, but for Jacob & for Joseph. Though His almighty hand is often hidden....in God's great providence in Christ — He uses even the most bitter experiences of the fallen world around us & within us, to bring about His entirely good end. God is at work now no less than then;

v9, 'Then he dreamed another dream and told it to his brothers and said, "Behold, I have dreamed another dream. Behold, the sun, the moon, and eleven stars were bowing down to me."

We move from God's harvest dream...to a celestial dream...the pairing of these dreams meant certainty of fulfilment...in Genesis 41:32, Joseph tells Pharaoh that '*the doubling of Pharaoh's dream means that the thing is fixed by God, and God will shortly bring it about.*' In understanding the moon & sun to be referring to his dead mother & Jacob....he moves from sharing it with his brothers now to his father as well.

V10, 'But when he told it to his father and to his brothers, his father rebuked him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dream that have have dreamed? Shall I and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indeed come to bow ourselves to the ground before you?" And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him.'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입니다...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겪는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그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 십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찬송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싹은 쓴맛이 날지 모르지만, 하지만 꽃은 달콤할 것이다.”... 이 찬송과 같이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 싹과 같이 쓴맛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손은 때로 숨겨져 있으며...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이런 쓴 경험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9 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전 절의 추수에 대한 꿈과함께, 이제 이 구절에서는 천체에 대한 꿈을 보게 됩니다...이 추수와 천체에 꿈을 합치면, 어떤 특정한 성취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창세기 41:32 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기를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이 자신의 죽은 어머니와 야곱을 의미함을 이해할 때, 요셉은 이 꿈을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도 가서 말합니다.

10~11 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Did Jacob have any right to rebuke his son? Not over the dream — which is the point at which he rebuked him it was the thought of Joseph's seniors being under his authority that was intolerable to his father. And by God's remarkable sovereign will... The brothers' resentment merely kept rising now also to include jealousy.

+ while these dreams from the Lord & the sin of the fallen family members would seal the division; that would be the very means the Lord would use to save Israel, his family.... & the entirety of God's people. The passage ends with hope ... v11b, '[but] his father kept the saying in mind.'

The Hope that Prevails

In other words, Israel had enough wisdom to realise that there was more to the dreams than the offence he took. In that the Lord would have us know that in the midst of the dysfunction that comes from our sin & the sin of others ... when it seems like all is bad & there is nothing good — He is at work!

Invisible doesn't mean absent. Hope prevails! God has guaranteed that perfectly in our Lord Jesus Christ who shows the greater contrast to Joseph in John 15:25,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In that greatest evil God was at work by grace to defeat it...That by Jesus' sacrifice, many would be redeemed & transformed...That we would have hope in all circumstances knowing that the grace of our Lord Jesus is greater than all our sin.

요셉의 형들이 동생 앞에 절 하여 그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이런 꿈의 내용을 야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요셉을 꾸짖음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뜻 가운데...이 형제들은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며 그를 질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런 꿈과 그의 가족들의 죄로 인해, 그 가정은 분열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소망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11 절 후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만연하는 소망.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함은 이스라엘이 이 꿈을 단순히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에는 어떤 더 큰 의미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많은 집안 가운데 난무하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소망은 만연합니다! 요한복음 15:25 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대비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보장하십니다.

그 큰 악가운데서도...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심으로 악을 패배 시키셨습니다...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구속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앞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